

[사회]

선우중호 전 서울대 총장·이관행 과기원 공학과 교수
광주과기원 총장 후보 2명 압축

제5대 광주과학기술원장 후보가 선우중호 전 서울대 총장과 이관행 광주과기원 기전공학과 교수(가나다 순) 등 2명으로 압축됐다. 광주과기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임관)는 지난달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원장 공모에 접수한 7명 가운데 면접심사 등을 거쳐 2명의 후보를 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과기원은 이날 중순께 이사회(이사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를 통해 2명의 후보 중 과반수의 추천을 받은 최종 후보를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

이다. 새 원장의 임기는 4년이다. 선우중호(68) 전 총장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지난 1974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 1996년부터 2년간 서울대 제21대 총장을 지냈다. 이관행(55) 교수는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산업공학 석사 학위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1995년부터 광주과기원 기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송일중·고 100주년 기념 이어달리기

광주 송일중·고와 송일중·고 총동창회는 1일 기수별 동문 100여명이 참가하는 '개교 100주년 기념 이어달리기' 행사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대동지에서 모교까지'를 캐치프레이즈로 학교 설립지인 남구 양림동을 출발, 북구 운암동 옛 송일중·고 터를 거쳐 현재의 북구 일곡동 교사까지 15km 구간을 이어 달렸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아동 성폭력 10% 교육기관서 발생

아동 성폭력 10% 정도가 유치원·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가 발간한 2007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은 지난해 19건(전체 193건), 2006년 33건(전체 235건) 등으로 해마다 전체 성폭력 사건의 10%를 웃돌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아동 성폭력이 발생한 교육기관별 유형은 지난해 유치원 14건(7%), 학원 3건(2%), 학교 2건(15%)이었고 2006년에는 학교 15건(6%), 유치원 15건(6%), 학원 3건(1%)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피해자 집이었고 가해자 집과 외진 장소가 뒤를 이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확대

초6·중3·고1 대상... 성적 공개 가능성

초·중·고교생 일부를 대상으로 매년 가을 치러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부터 전체 학생으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실시되는 초·중·고교 정보공시제의 공개 대상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포함되면서 학교 서열화 논란이 일 전망이다. 1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월 14~15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간 전체 대상 학생의 약 3%에 해당하는 학생을 표집해 국어와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를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 전체 대상 학생이 모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시험은 전체 학생이

치르며, 성취도 평가는 일부 '표집 집단'에 한정된다. 교과부는 평가 대상 '표집 집단'의 범위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중·고교 대상 학생 전체가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올해부터 정보공시제가 실시됨에 따라 정부 또는 교육청 차원은 아니지만 학교별로 성적이 전면 공개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달 말 시행 예정인 초·중·고교 '정보공시제' 관련 법률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학교장이 공시토록 했다. 현재 법률에 규정된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 횟수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업성취도 평

가 시험을 올해부터 전체 학생이 치를 수 있도록 하되 평가 결과 공개는 표집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학교별 성적 공개 문제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명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공개 문제는 교육계 일각에서 '학교 서열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온 상태여서 공개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담당자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야기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시제" 법률 시행령을 정하는 데 있어 최대한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May 2nd (Friday) and May 3rd (Saturday). Includes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conditions across various regions like Seoul, Busan, and Jeju. A table shows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probabilities for different areas.

PC방·음식점도 단기방학 결식 학생 1만여명에 점심 지원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절대금연시설'에 PC방과 음식점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돼있는 절대금연시설에 PC방과 음식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이달 내에 입법에 고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의 날인 31일 이전에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희뉴스

전남도는 1일 도내 초·중·고의 82%인 721개 학교에서 5월 가정의 달에 따른 단기방학(4~12일)에 들어감에 따라 결식우려 학생 1만200명에 대해 점심식사를 지원한다. 급식 지원은 식품통, 도시락 배달, 주·부식 지원 등의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된다. 한편 전남도는 결식아동 666명과 학기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1만1천224명 등 총 1만1천890명에 대해 급식을 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news@

Advertisement for 'Daehakpyeonim 10myeong 7myeong Kimyoungchunshin'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Promotes university entrance preparation courses with contact info www.kimyoung.co.kr and a phone number 227-8088.

Advertisement for 'Life News' (생활안내) featuring a cartoon cat. Promotes advertising services with phone number 227-9600.

Advertisement for 'Public Personnel Introduction Specialist'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romotes a course for becoming a public personnel introduction specialist with phone numbers 361-8111 and 529-8111.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Management Specialist' (주택관리사) course. Promotes a 4-month free lecture for the exam with phone number 062-222-6790.

Advertisement for 'Public Personnel Introduction Specialist' (공무원) preparation. Promotes a course for becoming a public employee with phone number 222-4560.

Advertisement for 'Public Personnel Introduction Specialist' (공인중개사) course. Promotes a course for becoming a public personnel introduction specialist with phone number 236-2467.